

민주 도지사 경선 진출 3인방 “전북 변화” 한목소리

김관영 “전북 산업지도 새롭게 완성시킬 것”
김윤덕 “공정·깨끗·부강 전북 만들기 앞장”
안호영 “민주당은 변화 선택, 전북을 새로이”
송하진 도지사 등 경선 탈락자에 위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전북지사 공천 경선자로 김관영 전 의원(2선)과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안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결정했다.

◇김관영 “전북정치를 유능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혁신해야”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1차 컷오프에서 생존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디지털 대전환과 6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전북 발전 전략을 위해 전북정치를 유능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 주도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북지사 본 경선에 나서게 된 김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가 “민주당의 명령으로 본 경선에 나서게 됐다. 이는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 김관영이 전북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탈락자에 이의를 올린 송하진 전복지사에게 “그 동안 전북경제 도약의 길을 열어주는 업적을 잊지 않겠다”고 위로한 후

“송 지사께서 열어주신 전북비전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송 지사께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등 탄소 융·복합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데 기여하셨다”라며 “잘된 것은 계속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고, 후회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해서 전혀 다른 색깔이 아니라 청출어람 하는 전북도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의 산업지도도 새롭게 완성하겠다. 송 지사께서 꿈꾸신 전국 10위권 광역 경제권 진입도 목표로 삼겠다”라며 “전북 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경제와 민생 중심의 도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덕 “더 열심히 해 비랑 끝 전북 비꿀 것”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1차 컷오프에서 생존한 김윤덕 예비후보가 “당원동지의 뜻이 왜곡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자인 김관영 예비후보(사진 왼쪽),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이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을 다해 비랑 끝 전북을 비꾸겠다”는 포부를 재차 밝혔다.

배수 압축 통지를 받고 전북도의회를 찾은 김윤덕 예비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후 “아담이 된 민주당, 고립된 전북 성장동력을 잃고 조여오는 우리의 불안한 삶을 확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속드린 200만 도민, 3%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1인당 지역총소득(GDP) 4만불 시대를 여는 2·3·4 전북비전’을 실현해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불멸한 반성이 계속돼야 민주당이 지켜지고 갈 수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하는 데 김윤덕이 앞장서겠다. 뚜벅 뚜벅 걸어가겠다”고 도민 지지를 호소했다.

◇안호영, “민주당은 변화 선택, 전북을 새롭게 비꿀 것”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나서게 된 안호영 예비후보가 “민주당은 변화를 선택했다”라며 “이제 도민과 함께 전북을 새롭게 비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



핑룸을 찾아 먼저 “성원해주신 전북도민과 당원 여러분 고맙다”고 인사한 뒤 “전북발전을 위해 큰 헌신과 수고를 해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당의 결정을 깨끗하게 승복해주시길 유성열 신바람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을 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라며 ▲변화의 방향 ▲변화의 주체 ▲변화의 내용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양소멸과 대전환기의 위기를 돌파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민주당

의 적봉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도지사 경선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변화를 주도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길을 걸어온 민주주의자와 같, 깃자 행보를 걸어온 철재정치인의 대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선 경쟁자인 김관영 예비후보를 겨냥해 “통합정선에 따라 복당을 했다면 먼저 반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격했다.

안 예비후보는 “김관영 예비후보는 유승민 이준석과 같은 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퍼붓던 저주의 말들이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라며 “그러나 사람이 도지사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해주는 일이다. 통합의 밑일이 되겠다”며 분열의 밑일이 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 조배숙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국힘당은 국민의당 출신의 조배숙 전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그렇다면 누가 민주당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인가. 같은 국민의당 출신의 인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진정한 정치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민과 민주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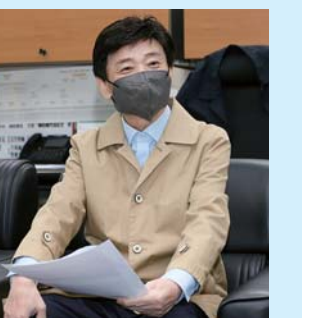
“도 광역의원 정수 확대 환영”

성경찬 도의원 “고창 2석 시수·전주 1석 확대 전북도 광역의원 39석에서 40석으로 늘어”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15일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여야 정계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전북 광역의원정수가 39석에서 40석으로 확대됐으며, 당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는 2석으로 유지됐다. 또한 전주 시 광역의원 정수가 1석이 추가됐다. 성 의원은 2018년 부안군 선거구와 축소됐고 이번에도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축소될 거란 기류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고, 행안위 서

영교 위원장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광역의원 대표로 나서서 지역대표성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 사수를 위한 3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고창지역 윤준병 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당시 행안위 여당 간사,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상황을 돌파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크나큰 정치력을 발휘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현을 ‘복당자’ 자격 감점 면제? 납득 불가”

최정호·조용식 민주 익산시장 예비후보, 당 비대위 결과 원점 재검토 촉구

최정호·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정현을 예비후보에 대한 감점 면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여도에 따른 복당자의 패널티 감면 심사 기준을 발표했는데 당시 정현을 탈 시장 감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13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격으로 감점을 면제받게 됐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국민 대통합 취지를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복당자 감점면제는 그 열민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시장은 대선이 한창이던 1월 17일 민주당이 정한 복당일의 마지막날이 돼서야 겨우 복당을 신청했다. 더욱이 대선일인 3월 9일을 무려 한 달여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시장직을 내려 놓았다. 대선에 기여할 의사가 0.1%라도 있었다면 대선일 전에 시장직을 내려놓고 뛰어야 하는게 맞는 상식이다”라고 성토했다.

선의를 경쟁자지만 같은 입장으로 피해를 받게 된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도 목소리에 힘을 실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했다.



최정호(사진 왼쪽)·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정현을 예비후보에 대한 감점 면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한 정현을 예비후보의 해당 행위는 당헌, 당규 상 무거운 징벌 대상이다”며 “정 후보와 같은 사람이 익산시장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대위에서 정현을 예비후보에게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준 꼴이 됐다”며 “한 평생 더불어민주당을 지켜 온 대다수의 진성당원들은 이번 파장으로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

적했다. 그는 “정현을 예비후보는 탈당 감점을 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수당을 시도하고 실패한 전력이 있는 데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 분류되어 감점대상에서 제외시켜 경선 특혜를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율러 “정 예비후보는 대선 기간 중 현역시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대선기에도 평가 점수를 일점 받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기자·익산=이재춘기자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3기 활동 마무리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근 전주2)가 지난 15일 6개월간의 활동 임기를 마치고 전북도에 네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특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개 움직임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한 토론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추구,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현지의정활동, 전라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위는 이날 3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도에 ▲공공기관운영에 관련 법률 등 혁신도시와 관련한 법률 개정 요구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의체 활성화 및 개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전라북도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담부서 마련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 뭍 찾기로 르네상스 열 것”

전춘성 진안군수 재선 도전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진안을 동부권의 중심이자 전북의 자랑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권력기사 9면)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안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면서 진안군민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2년 전에 보궐선거로 진안군수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진안군민 권리 찾기’에 나섰다”면서 “그 첫 번째로 20년의 숙원사업이던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했던 진안사람의 권리 찾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 전춘성은 진안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진안고원을 전북도 치유원형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전북은 새민금을 중심으로 서부권 발전의 개발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에 집중됐고, 이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진안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인구활력사업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 등을 공약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진안을 동부권 진무장의 중심이자 전북의 자랑으로 만들겠다”면서 “진안르네상스의 시작, 그 맨 앞에 전춘성이 서 있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8일간 일정 돌입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8일 6.1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 및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각종 동의안 및 건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활동 결과 보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다.

이어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친 뒤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한다.

송지용 의장은 “ 그동안 전북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제11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